

202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③	2	④	3	⑤	4	①	5	③
6	⑤	7	①	8	②	9	②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②
16	③	17	③	18	③	19	⑤	20	②
21	④	22	③	23	①	24	②	25	③
26	③	27	②	28	①	29	⑤	30	①
31	④	32	⑤	33	④	34	①	35	①
36	④	37	⑤	38	⑤	39	④	40	⑤
41	①	42	②	43	②	44	③	45	④

해설

** 화법 · 언어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발표자는 1문단의 ‘여러분은 금방 ~ 경험에 있으신가요?’와 4문단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라는 ~ 적 있지요?’와 같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 계획 반영 여부 판단

1문단과 4문단에서 청중에게 익숙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례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① 1문단의 ‘저도 얼마 ~ 적이 있어요.’에서 발표 화제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고, ‘저는 이렇게 ~ 대해 발표하겠습니다.’에서 발표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② 2문단의 ‘앞서 말씀드렸던 ~ 수 있습니다.’에서 도입에서 언급한 경험을 발표 내용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의 ‘예를 들어 ~ 수 있습니다.’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고려한 표현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⑤ 5문단의 ‘여러분도 그동안 ~ 나가면 어떠세요?’에서 청중에게 권유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다.

3. [출제의도] 표현의 적절성과 화자의 표현 의도 이해

㉔는 지리가 낯설어 길을 묻는 여행자에게 답하는 상황이므로, ‘적당히’ 대신 구체적 수치를 말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이때 ‘적당히’는 내용을 완곡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㉔의 ‘어쩔 수 없는’과 ‘부득이한’은 비슷한 의미이므로, ‘부득이한’을 삭제하면 의미를 중복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② ㉔의 ‘해석되어졌어요’는 ‘되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해석되었어요’로 바꾸면 피동의 의미를 중복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 ③ ㉔의 ‘식탁을 안 닦았네요.’를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 표현인 ‘식탁이 안 닦였네요.’로 말하면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④ ㉔의 ‘저 내릴게요.’를 ‘비켜 주세요.’로 말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명확해지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

** 화법 **

4. [출제의도] 협상 사회자의 역할 이해

사회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사회자가 협상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해 ○○마을과 △△사의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회자의 두 번째 발화에서 사회자가 협상 내용을 정리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협상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학생 2는 두 번째 발화에서 상대측의 제안을 거절하며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대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상대측의 제안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개막 공연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마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상대측의 상황에 공감을 표현한 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어 장소 변경이 어렵다며 대안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세 번째 발화에서 상대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 안전 관리 인력을, 오후 근무 시간을 줄여 오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한 의견 제시

[자료 1]에서 주차율을 통해 보건소, 구청, 마을 입구 공터를 축제일인 주말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행사장까지의 소요 시간을 통해 마을 입구 공터는 관광객이 도보로 이동하기 먼 거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를 통해 구청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 주차장을 주말에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평일 비어 있는 시간대에 유료 개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3]을 통해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축제 장소와 가까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 1] ~ [자료 3]을 모두 반영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보건소와 구청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마을 입구 공터와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④ [자료 1]을 고려할 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주차율이 낮은 요일은 평일이지만 축제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주차율이 낮은 요일에 개방하여 공원 주차장의 혼잡도를 낮출 것을 [가]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언어 **

7. [출제의도] 부정 표현 이해

㉔는 동사 ‘입다’ 앞에 부정 부사 ‘못’을 쓴 짧은 부정문으로, 주체의 능력이 아닌 특정 계절의 기온에 의해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낸다.

② ㉔는 형용사의 어간 ‘중’에 ‘-지 않다’를 결합한 긴 부정문으로, 목소리 상태가 좋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㉔는 동사 ‘닫다’ 앞에 부정 부사 ‘안’을 쓴 짧은 부정문으로, 주체가 창문을 닫는 행위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④ ㉔는 형용사 어간 ‘편하’에 ‘-지 못하다’를 결합한 긴 부정문으로, 마음이 편한 상태를 기대치로 하여 그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⑤ ㉔는 형용사 어간 ‘춤’에 ‘-지 말다’를 결합한 ‘말다’ 부정문으로, 날씨가 춥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원을 나타낸다.

8.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 이해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따라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명사형 어미 ‘-음’을,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 ‘-음’을 사용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 표기 방식을 고려했을 때, ㉔에는 ‘잡다’의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ㅏ’이므로 명사형 어미 ‘-음’을 사용한 ‘자보문’이, ㉔에는 ‘늑다’의 어간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ㅓ’이므로 명사형 어미 ‘-음’을 사용한 ‘늑구미’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과 품사 이해

‘휘감다’는 ‘마구’,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휘-’와 동사 어근 ‘감-’이 결합된 파생어로,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휘둘러 감거나 친친 둘러 감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 해당한다.

① ‘새것’은 관형사인 어근 ‘새’와 의존 명사인 어근 ‘것’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고, 명사이다. ③ ‘본받다’는 명사 어근 ‘본’과 동사 어근 ‘받-’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고, 동사이다. ④ ‘먹이’는 동사 어근 ‘먹-’과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고, 명사이다. ⑤ ‘곤세다’는 형용사 어근 ‘곤-’과 형용사 어근 ‘세-’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고, 형용사이다.

10.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이해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굵기며’는 어근 ‘굵-’에 사동의 접미사인 ‘-기-’가 결합하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고 [굵기며]로 발음되지만, ‘닭기도’는 어간 ‘닭-’에 어미 ‘-기’가 결합하여 [닭끼도]로 발음된다.

①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하지만 ‘뽕-’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얇게’의 ‘ㄹ’은 [ㄹ]로, ‘뽕게’의 ‘ㄹ’은 [ㅁ]으로 발음된다. ③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ㅃ’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되므로 ‘없다’의 ‘ㅃ’은 [ㅃ]으로 발음되고,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르면, 겹받침 ‘ㅃ’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므로 ‘없는’의 ‘ㅃ’은 [ㄴ]으로 발음된다. ④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르면,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되므로 ‘맑다’의 ‘ㄹ’은 [ㄹ]으로 발음되고,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르면, ‘읽는’의 ‘ㄹ’은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⑤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르면,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되므로 ‘젊다’와 ‘삶도’의 ‘ㄹ’은 [ㄹ]으로 발음되고,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젊다’는 어간 ‘젊-’ 뒤에 어미 ‘-다’가 결합하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결과적으로 ‘젊다’는 [젊따]로 발음된다. ‘삶도’는 체언 ‘삶’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 사회 **

□ 출전 : 김하열, 『헌법강의』
윤선희 외, 『영업비밀보호법』

11.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

(가)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바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사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 (나)에서 동종 경쟁 업체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기본권의 일종인 자유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기본권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며, (나)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근로 계약 체결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근로 계약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④ (가)에 기본권 제한 및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는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나)에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정보의 사례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1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가)의 1문단에서 기본권 침해는 위헌이며, 공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제한이 과도하여 정당화되지 못하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의 1문단에서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하였고, (가)의 2문단에서 사법은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2문단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설명하며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해 자유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4문단에서 법원이 계약

을 무효화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기도 한다며 사적 법률관계에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나)의 1문단에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신뢰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계약상 지켜야 할 신뢰 의무는 비밀유지의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의 2문단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지켜야 할 의무로 간주된다고 하였으므로 신뢰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서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1문단에서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1문단에서 영업비밀은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

(가)의 3문단에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들의 합의만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계약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과 기본권의 보호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의 4문단에서 헌법 질서 안에서 사적 자치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그 한계를 설정하여 기본권 침해로 판단되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하되 경업금지의 범위를 축소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하면 ‘상충하는 두 가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이며,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이다.

1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보기>에서 법원이 A 기업과 근로자 갑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경업금지의 기한을 축소한 것은 (가)의 4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로, (나)의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하되 경업금지의 범위를 축소한 경우이다. 따라서 법원이 A 기업과 갑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A 기업보다 갑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2문단에서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근로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 계약상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지켜야 할 의무로 간주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갑은 A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법원이 갑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갑의 전직으로 A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가)의 4문단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경업금지의 범위를 축소하므로 <보기>에서 법원이 A 기업과 갑의 근로 계약 내용 중 일부, 즉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경업금지 기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가 기업에 근무할 당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퇴직

사유에 기업의 책임이 없어야 하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은 ‘술모가 있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영업활동에 ‘반드시 요구되는’의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정도에 지나치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기본권의 제한이 ‘정도에 지나쳐’의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② ㉠은 ‘계약이나 조약 따위가 공식적으로 맺어지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계약이 ‘맺어졌다면’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은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 맡게 하거나’의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⑤ ㉠은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의 의미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를 여러 요건을 ‘생각하고 헤아려’의 의미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다.

**** 과학 ****

□ 출전 : 노태호, 『알기 쉬운 심전도』

17.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5문단에서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QRS파는 Q파, R파, S파로 구성된 복합체지만 일부 파형만 기록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QRS파는 항상 세 개의 파형이 함께 기록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장근육을 이루는 심근세포가 탈분극 상태가 되면 전기 자극이 전달되면서 심장이 수축되고, 재분극이 일어나면 다시 이완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5문단에서 심실의 심근세포는 거의 동시에 활성화되어 심실 전체의 탈분극 시간이 짧음을 확인할 수 있고, 6문단에서 재분극은 탈분극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의 가로 폭이 재분극을 나타내는 ㉡의 가로 폭보다 좁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심실은 심방보다 근육 양이 많아 전압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은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에 비해 세로 폭이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심근세포가 전기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 전기가 흐르는 탈분극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므로 전기적으로 자극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이해는 적절하나, ㉠은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전기적 자극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정상적인 심장의 경우 제2유도에서 각 파형은 모두 양성 편향으로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심전도에서 ㉠, ㉡, ㉢의 편향은 모두 일치해야 한다. ⑤ ㉠과 ㉡은 탈분극을, ㉢은 재분극을 나타낸 것으로 모두 심장 내 전기 자극의 흐름을 보여 주므로, ㉢이 전기 자극이 소멸된 상태를 기록한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 추론

3문단에서 쌍극유도에 사용하는 두 전극의 극성을 바꾸어 부착하면, 심전도의 파형이 심장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전극이 부착된 신체 부위는 동일하나 두 전극의 극성이 바뀌면 파형이 실제 상태와 다르게 기록되는 것일 뿐, 파형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심전도는 심장 내 전기 활동으로 생기는 전위차, 즉 전압을 파형으로 표현한 것이며 심전도의 세로축은 전압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쌍극유도는 왼팔, 오른팔, 왼다리 중 두 곳에 부착된 전극 사이의 전압을 기록하는 유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전극 사이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클수록 세로 폭이 긴 파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정상적인 탈분극은 전체적으로 심장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3문단에서 쌍극유도의 전극을 부착하고자 하는 두 위치가 신체의 좌우로 나뉠 때는 양극 전극을 왼쪽에 부착하여 심장의 실제 상태를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른팔에 양극 전극을 부착한다면,

탈분극의 정상적인 진행 방향을 관찰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제2유도는 오른팔에 음극 전극, 왼다리에 양극 전극을 부착하여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전달되는 탈분극의 진행 방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다. 1문단에서 정상적인 탈분극은 전체적으로 심장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진행된다고 했으므로, 제2유도에서 감지한 전기 활동의 방향이 정상적인 심장 내 전기 활동의 방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쌍극유도의 전극을 부착하고자 하는 두 위치가 신체의 위아래로 나뉠 때는 양극 전극을 아래쪽에 부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왼팔과 왼다리에 전극을 부착한다면, 왼팔에는 음극 전극을, 왼다리에는 양극 전극을 부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보기>의 ㉠에서는 P파, QRS파, T파가 모두 규칙적인 모양과 주기로 기록됐지만, QRS파가 기저선보다 아래에 있어 음성 편향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문단에서 정상적인 심장의 경우 제2유도의 각 파형은 모두 양성 편향으로 기록된다고 했으므로,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QRS파가 음성 편향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심실 내 탈분극의 진행 방향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심실 내 재분극의 진행 방향은 T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의 QRS파가 음성 편향으로 나타난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① <보기>의 ㉡에서 P파는 기저선보다 아래에 있어 음성 편향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문단에서 정상적인 심장의 경우 제2유도에서 각 파형은 모두 양성 편향으로 기록된다고 했으므로 심방의 탈분극을 일으키는 전기 자극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보기>의 ㉢에서는 ㉠에 비해 QRS파의 가로 폭이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QRS파는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며 심전도의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므로, ㉢에서 심실 전체가 탈분극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보기>의 ㉢에서는 ㉠에 비해 P파 시작점에서 QRS파 시작점까지의 간격이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문단에서 해당 간격을 통해 심방의 탈분극이 심실로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가 이동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보기>의 ㉡과 ㉢에서는 ㉠에 비해 R파와 다음 R파까지의 간격이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문단에서 R파와 다음 R파까지의 간격을 통해 심장이 빠르고 느리게 뛰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에 비해 ㉡과 ㉢에서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 인문 ****

□ 출전 : 이병창,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인의 현대 철학』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3문단에 따르면 지젝은 주체의 원초적 본능이 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의해 억압되어 있으며, 주체는 원초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체는 필연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보편적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주체는 자신의 원초적 본능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아감벤은, 국가 권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제된 자들은 조예로, 배제되지 않은 자들은 비오스로 규정된다고 본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아감벤이 전체주의의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를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도 주체의 위상을 규정하고 배제와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지젝은, 주체가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그 환상은 결핍을 은폐하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고 본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아감벤과 지젝은, 자신의 주체성을 외부 구조로부터 확인받는 존재는 주체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아감벤과 지젝에 의하면 그러한 존재는 진정한 주체로 볼 수 없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

1문단에 따르면 ㉠에는 근대적 사회 구조 안에 서만 주체의 의미를 다룬 이전의 주체 이론에 대

한 비판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새로운 주체 이론에서는 이분법적 구조, 사회적 질서, 사회 구조 등의 지배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주체에 대해 다루면서 ㉠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적인 구조가 ㉠을 초래한 것이며, 이 지배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이 실현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4문단에 따르면 아감벤과 지젝은 외부 구조로부터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받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만, 주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은 주체의 의미를 근대적 사회 구조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다룬 것을 비판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일어난 사회 구조가 유지되어야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2문단에 따르면 아감벤은, 새로운 주체를 국가 권력이 만드는 이분법적인 예외 상태를 따르지 않고, 국가 권력에 저항하여 이분법적인 구조가 사라진 진정한 예외 상태를 만드는 존재로 본다. <보기>의 주인공은 지상인이면서도 정부에 반란을 일으켜, 지하인을 배제하고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정부에 저항하므로 주인공을 이분법적인 예외 상태에 있는 주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아감벤은, 조예를 국가 권력에 의해 사회에서 배제된 주체이자 국가 권력에 종속된 주체로 본다. <보기>의 지하인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지상의 사회에서 배제된 주체이다. 또한 지하인은 정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주체이기도 하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지젝은, 진정한 주체를 자신의 결핍이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환상으로 부터 거리를 두는 존재로 본다. <보기>의 주인공은 많은 황금을 가져도 끝내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으므로, 주인공을 환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주체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지젝은, 주체가 사회적 질서 속에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필연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되며, 환상이 이러한 결핍을 일시적으로 은폐한다고 본다. <보기>에서 황금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지상인은, 황금이 전부라는 환상에 의해 주체가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결핍이 일시적으로 은폐된 상태이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지젝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환상으로 작용한다고 보며 이러한 환상이 특정 체제의 유지에 이용된다고 본다. <보기>에서 할당량을 채운 지하인만 지상인이 될 수 있다고 방침을 내세운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며 통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독서 · 작문 **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가)의 5문단에서 자아의 대립 상황에서는 상대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자아의 패배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아의 패배와 동일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가)의 3문단에서 가치는 논리적 증명이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 증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대립으로는 가치 대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인간의 뇌는 스펙트럼적 현실보다는 이분법적 구분을 더 용이하게 처리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과 같이 국가를 이원적으로 분류하는 사고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 부정 본능이 생존을 위해 위협을 빠르게 인식하도록 진화한 인지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일반화 본능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과 결합될 때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읽기 전략 파악

(나)의 3문단에서, 부정적 사례에만 집중하는 경향은 전체 상황을 과도하게 비판하도록 만들어 객관적 진실과 멀어지게 한다는 부정 본능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4문단에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 증대, 기술 발전의 가속 효과 등의 측면에서 인공 지능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인공 지능 발전의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경향으로 인해 인공 지능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 중 인간에게 불리한 측면에

만 주목하게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부정 본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공 지능의 부정적 측면만 주목하는 것이 인공 지능에 따른 사회 변화의 객관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해하며 읽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다)에서 언급된 기술 발전의 가속 효과는 부정 본능에 의해 간과될 수 있는 인공 지능 발전의 긍정적 효과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인공 지능 활성화를 주도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수립

<보기>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비평문에서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글쓰기 계획으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 글에 제시된 해결 방안은 (다)의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객관적, 균형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공 지능의 발전에 따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인공 지능 기술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② (다)의 6문단에서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기술의 실제 영향보다 인간의 심리적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4문단에서,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특정 주체의 악행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한스 로슬링의 관점을 적용하여 인공 지능 기술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상황이 인공 지능 활성화를 주도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함 때문이라며 그들을 비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 점검 및 수정

<보기>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창의성은 더 이상 인간에게만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능력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A]는 (나)에 언급된 간극 본능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을 창의성이 없는 단순 기계로 보거나 인간과 같은 창의성을 가진 위협적 존재로 보는 양극단의 사고가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 보면, 결국 <보기>는 인공 지능의 창의성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와 (나)를 연결 지어 간극 본능에 의해 인공 지능의 창의성을 양극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다.

① [A]에는 인공 지능을 창의성이 없는 단순 기계로 보는 관점과 인간과 같은 창의성을 가진 위협적 존재로 보는 관점의 가치 대립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가치 대립 상황이 인공 지능을 수용적 도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보기>의 내용과도 무관하다. ④ [B]에는 인공 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공포로 느끼게 되면 인간은 자신을 기계보다 뒤쳐진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능한 인간이라는 자기상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자아 대립의 상황이 나타나 있고, (가)에서 자아 대립은 합리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전에 의해 인간이 ‘의미의 설정자’로서 새로운 층위의 창의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인공 지능의 발전이 초래하는 자아 대립으로 인해 인간이 새로운 층위의 창의성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⑤ [B]는 인공 지능 기술의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 본능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를 수용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정체성 약화가 아니라 정체성 구조의 재편 계기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정 본능에 의해 인공 지능 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정체성 구조 재편이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 작문 **

28.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 생성

1문단에서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후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도시 양봉에 대해 알게 되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도시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경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도시가 꿀벌을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스마트 양봉 기술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습도를 비롯한 벌통 내부의 환경과 꿀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온습도에 민감하고 분봉의 우려가 있는 꿀벌의 특성에 주목하여,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꽃가루가 묻은 벌들이 벌통을 오가는 모습과 벌통 내부를 살펴보면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5문단에서 ‘이번 동아리 ~ 되어 유익했다.’와 같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그에 따른 느낀 점이 제시되어 있다.

29. [출제의도] 글쓰기 표현 전략

3문단에서 도시 양봉에서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습도를 비롯한 벌통 내부의 환경과 꿀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양봉 환경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식으로 서술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① 2문단에서 도시 양봉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지만, 도시 양봉의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② 1문단에서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만, 꿀벌 개체 수의 감소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③ 3문단에서 꿀벌의 특성을, 4문단에서 벌통 내부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만, 꿀벌의 생태계가 지닌 특징을 인간 사회와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3문단에서 꿀벌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여 온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꿀벌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양봉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만, 꿀벌이 벌통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원리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30.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 점검 및 수정

초고 마지막 문단에서 ‘신문 기사의 ~ 매우 뿌듯했다’라며 개인적인 소감을 서술한 부분이, 수정 후 글에서는 ‘양봉이 이루어지는 ~ 있어 뜻깊었다’라고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강의 내용과 관찰 내용 등의 구체적인 체험 내용과 관련된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다. 또한 초고 마지막 문단에서 ‘앞으로도 나의 ~ 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라며 다짐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 수정 후 글에서는 ‘앞으로도 동아리 ~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생태 동아리의 활동과 관련된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다.

** 고전 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임화정연」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부인과 정현이 그 간교함을 어찌 알겠는가.’,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와 같은 서술을 통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임규는 노선생들과 부친이 계신데 ‘어찌 방자히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진명이 권하는 술을 완곡하게 거절하였을 뿐, 진명이 권한 술잔을 받기 위해 주변 어른과 부친에게 허락을 구한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

‘옥패 한 쌍’은 임규 집안이 정현 집안으로 보낸 예물이다. 정현은 이 예물의 ‘맑음’을 기뻐하며 그것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였고, 진명도 예물이 비록 간략하나 천금을 대신할 만하다

고 평가한다. 이에 반해 진담은 예물이 박하다며 ‘빙례’를 아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옥패한 쌍’은 인물들의 상반된 반응을 유발하여 혼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진담은 임 처사가 보낸 예물에 대해 천금을 대신할 것이라 말하며, ‘옥벼루로 답례’할 것을 정현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임규와 정현양의 ‘인연’이 빚남을 표하기 위함인 것이지 주인공 가문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아니다.

② 임규의 외모에 주목하기보다 내면을 보고 ‘엄숙한 군자’로 평가하며 인물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정현경을 통해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현 부부에게 걸으로는 임규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진상문이 속으로는 정현에 대해 ‘눈이 분명하지 못하’다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이러한 축생을 구하리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 진상문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진상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임규의 외모를 보고 대경실색하는 무리들에 대해 서술자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라고 논평한 부분을 통해 임규가 외모가 뛰어나지 않지만 영웅적 자질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주인공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정현은 임규의 내면적 가치를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반면, 정현의 부인은 임규의 외모를 의심하며 직접 보고자 하여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혼사 과정에서 인물의 외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이광명, 「북찬가」
(나) 장유, 「화당설」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의 ‘여의 잃은 ~ 배 아닌가’, ‘일점의리 살겠는데 ~ 자손 대신할까’, ‘나 아니면 ~ 뉘 사랑할까’ 등에서 모친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서의 어문형 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나)의 ‘이는 걸모습만 ~ 일이 아니겠는가?’에서 안타까움의 정서가 의문형 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② (가)의 ‘눈물일세’, ‘닫는구나’와 (나)의 ‘아아’ 등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나)는 ‘서쪽 변방’에서 ‘조정’으로 공간의 이동이 일부 나타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36. [출제의도] 맥락의 의미 파악

성정이나 습관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며 ‘천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성정이 바뀌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꿈을 돌려 상시 할까’라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노친을 뵈는 꿈속의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호르는 냇물’이 되어 노친이 계신 ‘집 앞’에 호르고자 하므로 ‘호르는 냇물’이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노친 곁에 머물고 싶은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웃’과 ‘신’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 노친의 안위에 대한 화자의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⑤ ‘백옥’의 훌륭함을 칭찬하는 장자의 평가를 제시하여 ‘백옥’의 긍정적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37.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

③는 유배지의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환기하고, ⑥는 ‘성정’이나 ‘습관’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진다’ 해도 이를 감수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므로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의 화자가 ‘집안도 파산하고 친속은 흩어’진 상황에서 ‘낙엽같이’ ‘갈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삶의 기반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기쁨이 가득’ 차게 된 주체는 글쓴이가 아닌, 유배지

에서 돌아온 ‘신공보’이다.

③ (가)의 화자가 ‘유람에도 뜻이 없’이 ‘두문하고 홀로’ 지내며 현실의 괴로움에 상심하는 반면, (나)의 ‘신공보’는 ‘화당’이라 호를 지어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자신을 바꾼 ‘거백옥’을 본받고자 하였으므로 번민 속에서도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노모와 함께하지 못해 서러워하며 삶의 기반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키 없는 배’에 비유하고 있고, (나)에서는 ‘예순’이라는 나이에도 ‘변화’하고자 노력하여 ‘바깥이라는 경지’를 체득한 ‘신공보’와 ‘권을 먹도록 잘못된 것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대비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보여 준다.

**** 현대 소설 ****

□ 출전 : 이윤기, 「숨은 그림 찾기 1-직선과 곡선」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A]에서 서술자는 ‘희귀한 미덕의 소유자’, ‘모노코드 난수표의 소유자’, ‘인식의 지평 넓히기를 한사코 거절하는 사람’ 등 ‘하 사장’에 대한 평가를 나열하고 있다. [B]에서 서술자는 ‘하 사장’의 호텔을 장기 임대하여 서재를 꾸며 놓으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름대로 계산을 놓아 보’고 있으므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사고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 ‘모노코드 난수표의 소유자’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관찰 대상의 심리를 묘사한다고 볼 수 없고, [B]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일모 선생’이 ‘그래서 자네 ~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에서 ‘하 사장’의 행동에 내포된 진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㉔에서 진의를 알게 된 데에 따른 ‘나’의 당혹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㉔은 ‘하 사장’의 눈에 ‘나’가 어떻게 비쳤을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분으로, ‘나’의 ‘책을 화장실에 처넣은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나’에 대한 ‘하 사장’의 부정적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나’는 ‘하 사장’의 절충안을 듣고 ‘내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는 앞서 하 사장을 ‘검소하고 질박하게 사는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므로, ‘합리적인 절충안’은 ‘나’가 ‘하 사장’의 강점이라고 여겼던 면모가 드러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하 사장’이 ‘유럽인과 유태인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일 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① 하 사장에 대한 ‘나’의 인물평은 ‘어쩐지 단 ~ 거절하는 사람...’이라며 하 사장이 인식을 넓히지 않는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인식을 넓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가치관을 투영하여 하 사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 사장을 ‘구제 불능의 외눈박이’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검소하고 질박하게 사는 이치를 터득한’ 하 사장의 입장에서 ‘나’가 ‘고급 위스키’나 ‘쇠고기’를 사 온 행위는 하 사장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일모 선생은 ‘그렇다면 그러는 ~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반문하며, 하 사장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하 사장에 대한 반감만 드러내는 ‘나’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지적하고, 이러한 ‘나’의 태도를 ‘발 밑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⑤ 일모 선생이 ‘대롱 시각’으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니냐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한 채 하 사장의 한 가지 면만을 보고 타인을 평가한 것과, 자기 자신이 타인

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못한 상황을 통찰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모 선생의 말은, ‘나’가 자기 식대로 하 사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로 볼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 (나) 윤동주, 「돌아와 보는 밤」
(다) 황인숙, 「슬픔이 나를 깨운다」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다)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인 ‘슬픔’을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여 슬픔을 의인화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감정을 의인화하여 감정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다)는 추상적 대상인 ‘슬픔’의 구체적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화자의 슬픔은 상상 속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슬픔은 경외의 대상도 아니다.

4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

‘세상’과 ‘뿔’을 보던 화자가 눈을 감는 행위를 통해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를 듣고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아 ㉔는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가게 된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슬픔이 과로하면서 화자를 깨우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이에 따라 화자가 슬픔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㉔는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① ㉔는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이지 무력감을 극복해 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② 2연을 통해 이미 방 안은 어두운 상태를 알 수 있으므로 ㉔는 방을 어둡게 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눈을 감음으로써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㉔는 경험적 사실로만 세상을 인식하겠다는 화자의 선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는 것은 화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㉔는 화자의 선택으로 점점 커지는 슬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슬픔과 분리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㉔는 화자가 슬픔과 분리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에서 화자가 ‘방에 돌아와 불을 끄’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 속에 젖’은 세상을 보는 것이 외부 세계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다)에서 화자는 슬픔이 ‘어느 결엔가 눈에 띄지 않기도 하지만’ 방안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고 하였으므로, 슬픔이 잠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방’이 외부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화자가 ‘방에 돌아와 불을 끄’는 것은 세상의 낮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는 점과, 화자가 ‘창’을 통해 ‘뿔’을 바라보며 ‘방 안’과 ‘세상’이 모두 어둡다고 인지한다는 점에서 (가)에서 방이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를 분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하면서도 ‘창을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과 관련지어 시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에서 화자가 눈을 감으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상이 능금처럼’ ‘익어’ 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가)에서 방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것과 관련지어 시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다)에서 화자가 ‘방을 향하여’ ‘돌아갈 때’ 슬픔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 여기고 있고, 그 모습을 ‘굽다랗’다고 표현한 점에서 슬픔과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므로 (가)에서 방이 ‘삶을 대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는 것과 관련지어 시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에서 화자가 눈을 감고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를 듣는 모습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다)에서 화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슬픔에게 ‘모

르겠어'라고 '중얼거'리며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내면과 교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
에서 방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내면
과 교류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